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심의 검토보고

2021. 11. 30.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1. 연구단체 운영 현황

연번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1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안향자
2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정혜영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2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3. 심의 대상 연구단체

- 가.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 나.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 4. 참고사항

- 가. 관례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나. 예산조치 : 1천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623십만원의 10% 이내)

## 5. 검토보고

### ■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 1)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단체명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내용	연구주제	성북구 각 동의 역사 문화 발굴		
	연구목적	성북문화원 학예사, 지역 내 대학교수 및 학계 전문가들과 의원이 관내 각 동 및 권역별 역사 연구에 참여하여 성북구 역사, 문화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결과	(별 첨)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오백만원 (₩5,000,000)		
	집행액	금사백구십이만칠천일백원 (₩4,927,100)		
	잔액	금칠만이천구백원 (₩72,900)		
	집행내역	현수막 제작	금칠만칠천원 (₩77,000)	
		강사료 지급	금일백사십일만원 (₩1,410,000)	
		회의 관련 물품구입	금일백오십칠만일백원 (₩1,570,100)	
		결과보고서 제작비용	금일백팔십칠만원 (₩1,870,000)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2)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단체명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내용	연구주제	성북구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입법 활성화 도모		
	연구목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성북구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 등의 제·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성북구의회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북구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의원 스스로의 조례입안을 위한 전문성 함양 및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상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결과	(별 첨)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오백만원 (₩5,000,000)		
	집행액	금사백사십이만구천칠백이십원 (₩4,429,720)		
	잔액	금오십칠만이백팔십원 (₩570,280)		
	집행내역	현수막 제작	금사만사천원(₩44,000)	
		강사료 지급	금일백만팔천원(₩1,008,000)	
		회의 관련 물품 구입	금일백일십칠만칠천칠백이십원 (₩1,177,720)	
		결과보고서 제작비용	금이백이십만원 (₩2,200,000)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 검토의견

- 2021년 11월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2개의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심의내용은 연구 활동비 책정과 배분,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
-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1억560만원)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어, 검토결과 2개의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2개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한 연구 활동 결과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 됨.